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사 발간

강의록과 함께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 기증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원 일동 1998. 1. 20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사가 발간됐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교실 및 흉부외과학의 역사, 회고담, 이영균교수 추모의 장, 동문들의 발자취, 사진첩 등 40여년의 발자취를 생생히 담고 있다.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주임 金容珍)은 57년 임상과로 독립한 이후 68년 교실로 첫 출발, 교육·연구·진료등에서 우리나라 흉부외과학분야를 이끌어 왔다.

이번 교실사는 지난 7월 전임 金周顯 주임교수에 의해 완성됐으며 최근 출

판돼 동문 및 유관기관등에 배포됐다.

金周顯교수는 발간사에서 『초대 이찬범 주임교수님의 기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2대 이영균 주임교수님의 육성녹음이 크게 도움이 됐으며 3대 서경필, 4대 김종환, 5대 노준량 주임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실사의 골격을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은 金容珍교수가 주임교수 및 과장 바통을 이어받아 교실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